

DATE	LOCATION	TIME	ITINERARY
10/11 (토) Day 1	인천	9:00	인천 국제공항 3층 14번 출입구 앞 M 카운터 만남의 장소
		12:30	인천 국제공항 출발
	프랑크푸르트	17:00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
		17:00~18:00	석식
	스트라스부르	18:00~20:30	프랑크푸르트 - 스트라스부르 이동 (210km)
		20:30~	숙소 이동 및 휴식

10/12 (일) Day 2	스트라스부르	07:00~08:00	조식
		08:00~11:00	◆<세계문화유산> 스트라스부르크
			◆<세계문화유산> 소규모 마을의 수변공간 개발 및 활용 : 뱀띠프랑스
			◆도시광장의 역할 : 쿠티베르크광장 ◆보행자 우선 친환경 거리 : 스트라스부르 거리
		11:00~12:00	스트라스부르 - 콜마르 이동 (76km)
	콜마르	12:00~13:00	중식
		13:00~15:00	◆화려한 건축미를 뽐내는 작은 베니스 : 뱀띠베니스
			◆애니메이션을 통한 구 시가지 활성화 도시재생 : 콜마르 구 시가
		15:00~16:00	콜마르 - 프라이부르크 이동
	프라이부르크	16:00~17:30	◆세계적인 에너지 제로 지향 친환경단지 : 보봉 지구
◆건축문화유산을 문화예술로 전환한 행사장 : 카우프하우스			
◆친환경 보행자 우선 거리 : 프라이부르크 거리			
	17:30~19:30	프라이부르크 - 루체른 이동	
루체른	19:00~20:30	석식	
	20:30~	숙소 이동 및 휴식	

1-1.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

1) <세계문화유산> 스트라스부르크

- 독일 국경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변방의 도시(17번이나 국적이 바뀌었음)지만 오래전부터 로마 직속의 주교 관할구이자 알자스 지방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번영을 누려왔으며, 옛 시가지에는 가톨릭 성당 및 중세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음.
- 인구는 26만 3940명(1999). 독일어로는 슈트라스부르크(Strassburg). 파리의 동쪽 447km, 라인강(독일 국경)의 서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하며, 알자스의 경제·문화 중심지. 또 유럽 전체의 교통의 요지이며, 라인강(江)과 론강(江)·마른강(江)을 잇는 운하가 시의 동쪽에서 합류하여 큰 하항을 이루는 동시에 육상교통도 발달. 공업이 활발하여 철강·기계·화학·전자·섬유·제분·식품·양조 공장 등이 있고, 스위스·독일과의 교역량도 많음. BC 15년 로마시대에 아르겐토라툼이라 일컬어졌는데, 455년에 훈족의 침입으로 파괴되었다가 그 후 복구되어 스트라테부르쿰(大路의 도시)이 되었음.
- 842년 최초의 프랑스어 문헌인 ‘스트라스부르 맹약’이 만들어졌음. 855년부터는 신성로마 제국에 속했으나 1201년에 자유도시가 되었으며, 1681년에 루이 14세에 의해 프랑스에 합병되었음.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때 독일군에게 점령당하였음.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4년 동안 독일군 점령 하에서 알자스-로렌 지방의 주도가 되었음. 로마 직속의 주교관할구이며, 1567년 창립된 스트라스부르대학, 고딕 양식의 노트르담 대성당(11~16세기), 로앙 추기경의 저택(18세기 건립, 현재는 미술관), 기타 중세

풍의 가옥 등이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두산백과)

※ 10월 날씨 : 14.6 - 6.6 강수량 52.5

- 스트라스부르크성(노트르담성당¹⁾, Notre-Dame Cathedral)당, 장밋빛 대리석으로 지어진 고딕양식
 -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대성당. 대표적인 고딕건축의 하나. 1015년에 세워진 로마네스크 양식. 대성당의 화재(1176) 후 재건되고, 유량은 1190-1240년, 신랑은 1240-75년에 건조되었음.
 - 1574년에 만든 천문시계
 - 빅토르위고와 디즈니가 사랑해서 작품 “노틀담의 꼽추”의 배경

※ 카우치 서핑, 호스트 콜

※ 작지만 놀이동산, 마트, 오락실 등 다양. 춘천 연상. 대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관광객도 꽤 드나드는 아름다운 도시

2) <세계문화유산> 소규모 마을의 수변공간 개발 및 활용 : 뽀띠 프랑스(Petite France)

- 스트라스부르 옛 시가지 서쪽에 있는 마을로 중세의 모습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1988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
- 스트라스부르 옛 시가지 서쪽에 있는 마을로 중세의 모습이 잘 보존된 지역임.
 - 어부, 가족을 무두질하는 사람, 물방앗간 주인 등이 살던 곳으로 알자스 전통 목조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음. 라인강으로부터 들어오는 배들은 일강(III R.)의 갑문을 통해 이곳으로 진입하여 거의 모든 상점들의 뒷문까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었다고 함(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발길이 닿아 반들반들한 돌길을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곳임. 배를 타고 스트라스부르를 탐방하는 코스
 - 12시 30분마다 종소리
- 크리스마스마켓

3) 도시광장의 역할 : 구텐베르크광장

- 일강(III R.)으로 둘러싸인 스트라스부르 옛 시가지의 중심지인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 있음. 이곳에서는 근대 인쇄술의 창시자 구텐베르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음.
 - 구텐베르크는 독일 마인츠에서 태어났으며 스트라스부르에 머물고 있을 때 인쇄술을 발명하였음. 그의 인쇄술은 성서를 인쇄하면서 유럽전역으로 보급되었으며,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음. 광장에는 활자가 찍힌 종이를 들고 있는 구텐베르크의 동상이 있고, 동상 밑에 당시 상황을 묘사한 조각이 새겨져 있음.

※ 클레베광장 : 그림과 액자 판매

1) 성모 마리아라는 의미

4) 보행자 우선 친환경 거리 : 스트라스부르 거리

- 스트라스부르는 '길의 도시'라는 의미로 유럽 각국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전체 교통량의 40%가 통과교통임. 이로 인해 대기오염, 소음, 주차공간 부족등의 문제가 발생했음.
- 그러나 도시재개발과 대중교통 활성화로 세계적인 도시재생의 성공사례가 되었음.
 - 성공 요인으로는 성공적인 노면전차(트램) 도입과 자가용 이용억제 정책, 보행자 우선정책, 환경친화적 가로 조성 등이 있음

1-2. 콜마르(Colmar)

- 화려한 건축미를 뽐내는 작은 베니스 : 뽀띠 베니스
 - 알자스 지방 고유의 풍광을 잘 간직한 프랑스 북동부 국경 도시 콜마르에 있는 강변 거리임. 건물 대부분이 반목조 건물로, 알자스 특유의 건축미를 가졌을 뿐 아니라 밝고 화려한 색깔로 칠해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냄.
 - 중세 특유의 주택형인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가옥 형태로 창문을 그림으로 그린 경우도 많음. 스트라스부르와 유사함.
 - 운하를 따라 배를 타고 16세기 전통 가옥들을 관람하는 보트 여행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 그래서 뽀띠 베니스라 함.
- 애니메이션을 통한 구 시가지 활성화 도시재생 : 콜마르 구시가
 - 일본 애니메이션 명작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이 된 콜마르의 구 시가지임.
 - 구 시가지에는 생마르탱(성 마틴) 성당(1234년 건축 시작, 100년 가량 소요)을 비롯하여 옛 건물이 많음
- 노천식당, 성 도미니크 도서관, 미니트레인, 바르돌디박물관, 중앙시장(다양한 치즈)
- 색채감이 뛰어남
- 공원의 동상-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Federic August Bartholdi), 콜마르가 고향
- 슈웬디 분수(Schwendi Fountain)
 - 이 분수의 동상은 16세기 신성로마제국 시대 사람인 라자르 드 슈웬디(Lazare de Schwendi)라는 장군이라고 하는데, 헝가리에서 터키 군과의 전투 중, 그곳의 포도나무 종자를 가져온 것을 기념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손에 쥔 것이 포도나무 가지라고 한다. 조각가는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한 바르톨디(Auguste Bartholdi)라고 전해진다.



※ 우비 준비, 운하사진(제민천과 유사)

1-3. 프라이부르크(Freiburg)

○ 개요(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독일 서남부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독일어: Land Baden-Württemberg)의 면적 153.06km², 인구 20만 2500명(2001)이다. 라인강이 가까이 흐르며 슈바르츠발트의 서쪽 기슭에 해당한다. 정식 명칭은 프라이부르크 임 브라이스가우(Freiburg im Breisgau)이다.
- 1120년 건설되어 차링겐 공작으로부터 시로서의 특권을 인정받았다. 프라이부르크라는 이름은 당시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진 데서 유래한다. 1218년 우라흐 백작(후에 프라이부르크 백작이 되었다)의 영지를 거쳐, 1368년 프라이부르크를 포함한 브라이스가우의 전지역이 합스부르크왕가의 영지가 되었다. 30년전쟁(1618~1648) 때는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 군대가 이곳에서 튀렌과 콩데가의 루이 2세(Louis II)가 거느리는 프랑스군에 패배하였다(1644). 프랑스는 1677~1697년, 오스트리아계승전쟁(1740~1748) 동안에도 이 도시를 점령하였다. 1805년 바덴에 귀속되었다.
- 관광 및 각종 회의장으로 유명하며, 와인과 목재 거래의 중심지이다. 또한 1457년 알브레히트 6세(Albrecht VI)에 의하여 설립된 알브레히트루트비히대학(The Albrecht Ludwig -Universitat Freiburg)과 다수의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 1821년 대교구가 설치되었고 높이 116m에 이르는 탑이 있는 고딕 양식의 대성당도 볼 만하다.
- 그 밖의 건축물로는 13세기에 건립된 프란시스코파(派)의 장크트마르틴성당(Church of St. Martin), 16세기의 시청사, 1685~1701년 건립된 제수이트파 성당, 2000년 현재 주립음악대학으로 사용되는 18세기의 벤칭거하우스(Wenzingerhaus) 등이 있다.
- 검은숲 슈바르츠발트 (Schwarzwald)로 불리는 삼림지대의 서쪽 기슭지역에 위치해있어 슈바르츠발트에 가려는 여행객들도 많이 방문한다.
-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프라이부르크에서 기차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1시간이면 프랑스, 콜마 (Colmar)와 스위스, 바젤 (Basel) 에 갈 수 있다. [출처] 독일 프라이부르크 Freiburg im Breisgau |작성자 Rachel ※ 온도 : 7.9-15.1

○ 프라이부르크의 4가지 특징

- 독일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 독일의 환경수도, Bächle라 불리는 실개천, 대학도시
- 프라이부르크는 남쪽에 위치하여 독일에서도 가장 따뜻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학생들이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오고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조량이 제일 높아서 라고..
- 햇볕이 좋은 만큼 와인도 많이나고, 사진속 가운데 성당이 위치한 구시가지에는 매년 3백만명의 관광객이 모여든다고 한다.
- 두번째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라고도 알려져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제도 등이 잘 마련되어있어,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하기도 한다. 프라이부르크 내에서 **보봉 또는 보반(Vauban)** 이라고 불리는 곳이 특히 친환경 에너지 사용 주택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1970년대 초반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시민들의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걸맞는 친환경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에너지 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적극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또, 여름이 습하지도 않고 짧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도 버틸만 하긴 하지만, 기차, 트램, 교실, 기숙사 할 것 없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정말 틀지 않는다.
- 프라이부르크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무공해 교통수단의 사용을 활성화 했다. 무공해 교통수단 하면 자전거를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프라이부르크 인구수보다 자전거 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전거 도둑도 많다고 하니 주의할 것!). 자전거가 많은 것 뿐만아니라 자전거 도로도 참 잘되어 있다. 또,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잘 기다려준다(법적으로 차도위에서도 자전거가 보호받기 때문). 또, 무공해 교통수단인 트램이 있는데, 이 트램은 프라이부르크 곳곳을 돌아서 트램만으로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또 시내에는 자동차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자동차를 타는 것이 무공해 교통수단을 타는 것 보다 불편하다.
- 세번째 특징으로는 Bächle를 들 수 있다. Bach가 시냇물이라는 뜻인데 le라는 사투리가 붙어서 작은 시냇물이라는 뜻이다. 이 실개천은 수백년 전부터 프라이부르크 시내 곳곳을 흐른다고 한다.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고, 예전에는 불을 끄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주고, 겨울에는 습도를 조절하는 청계천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 네번째로, 프라이부르크는 대학도시다.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교는 달리, 프라이부르크 대학은 도시 곳곳에 대학건물이 위치해 있다. 대학도시여서 학생들이 많이 살고, 학생들만의 문화가 있어서 좋은 그런 도시다. 근데 집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건 함정.....

○ 세계적인 에너지 제로 지향 친환경단지 : 보봉 지구

- 150여 채의 태양광 연립주택(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으로 건설된 보봉지구는 신규 패시브하우스단지인

Rise Feld를 조성하여 독일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주택단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퇴비화 용기를 설치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퇴비화를 독려하고 있다.

- 헬리오트롭 :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태양광 집열판도 함께 움직임, 벽면도 태양광 에너지, 물이나 빗물 사용
- 1970년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으로부터 출발
- 작은 개천(Bachle), 격자 모양으로 흐름. 여름에는 온도 낮추고, 겨울에는 건조하지 않게 습도 조절, 화재 없음, 이 수로에 발 담그면 프라이부르크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속설
- 폐자원 활용 66%, 쓰레기와 불법주차 없음

○ 건축문화유산을 문화예술로 전환한 행사장 : 카우프하우스

- 프라이부르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이다. 독특한 붉은색 외벽으로 유명하다. 윈스터 광장의 남쪽에 있다. 시의 상거래 담당 부서(예전의 상인조합)의 건물로 사용되었다. 프라이부르크에 처음 지어졌던 카우프하우스는 14세기에 완공되었다. 1946년에서 1947년까지는 주 입법 기관의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1947년부터 1951년까지는 바덴(Baden) 의회 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건물 내부에는 오늘날까지도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카이저홀이 있다.

○ 친환경 보행자 우선 거리 : 프라이부르크 거리

- 트램과 버스노선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대중교통 체계가 잘 잡혀있다. 또한 속도제한 및 주차공간을 제한하는 등 자동차 이용은 제한하며 반대로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주차 공간, 드라이잠 강 주변의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이용은 권장한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으로 1973년에 윈스터 대성당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지역인 altstadt 지구에 보행자 전용 구역을 만들었다. 지구 전체를 보행자 전용 거리로 만든 것은 처음이다.
- 자동차보다 자전거 우선권, 장애물과 턱, 계단이 적고 모든 도로에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 전부
- 자동차는 무조건 30km 이하, 시내에는 출입 금지
- 트램

○ 프라이부르크 대성당

- 스트라스부르 대성당과 비슷

○ 마르틴탑 시계탑

-

○ Blumen Cafe-프라이부르크의 멋진 꽃카페

10/13 (월) Day 3	루체른	06:00~07:00	조식
		07:00~08:30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목조다리 : 카펠교 ◆현대건축디자인: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08:30~08:45	유람선 선착장으로 이동
		08:45~09:45	루체른 - 리기 이동
	리기	09:45~10:00	리기 - 리기산 이동
		10:00~11:00	◆월빙 산악지형 개발, 산들의 여왕 : 리기산
		11:00~12:00	중식
		12:00~12:45	리기산 - 리기 이동
	루가노	12:45~14:15	중식
			◆마리오보타 건축작품
		14:15~15:30	1. Central Bus Terminal, Lugano 2. Banca del Gottardo Viale Stefano Franscini 3235
		15:30~16:00	루가노 - 모로코테 이동 (12km)
	모로코테	16:00~16:45	◆세레시오의 진주, 고대 귀족 건물의 집합소 : 모로코테
		16:45~17:15	모로코테 - 꼬모 이동 (30km)
	꼬모	17:15~19:15	◆수변공간 개발 : 꼬모 호수 ◆수변 공간을 활용한 건축물 : villa olmo
		19:15~20:45	석식
		20:45~21:45	호텔로 이동 후 숙박

2-1. 루체른(Luzern)

○ 개요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루체른(Lucerne)이라고도 한다. 루체른호(湖)의 서안 로이스강의 기점에 위치한다. 배후에는 피라투스 산이 솟아 있어 알프스의 전모를 바라볼 수 있는 스위스 최대의 관광·휴양지이다. 730~735년에 베네딕트파(派) **대성당 장크트 레오데가르**가 설립된 후, 이곳을 중심으로 한 생고타르 고개의 개통에 따라, 지중해 지역과의 무역 중계지로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현재 기계·섬유·식품공업과 금세공이 발달했다. 해마다 **8·9월에 국제음악제**가 개최된다. 시에는 ‘루체른 사자’의 기념상, 17세기의 공회당, 8세기경에 건립된 옛 성당이 남아 있다.
-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리는 루체른은 바그너, 리하르트슈트라우스와 당대의 문인 괴테, 실러, 바이런 등이 방문했었다. 루체른 시는 알프스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해발 437미터의 도시로, 취리히보다 더 아름답고 공기도 맑은 곳이다.
- 이 도시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해, 8세기에 수도원이 세워지면서 루체른이란 이름으로 알려졌고, 13세기에 해발 2천 108미터의 장크트 고트하르트 고개가 개통되면서 알프스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잡았다. 합스부르크 가의 영토였던 이 지방에서는 13세기 말부터 서서히 독립운동이 일어나, 1296년에는 루체른을 제외한 세 숲의 나라가 스위스 영구 동맹을 맺어 1315년 드디어 독립을 했

고, 이어서 1332년에는 루체른도 이에 가담한다. 루체른은 16세기 초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때에는 반 종교 개혁 도시로 남아, 로마 교황의 사절이 머물면서 가톨릭의 본거지 역할도 했었다.(숲과 호수의 도시 루체른 (유럽 음악도시 기행, 2006.1.16, 시공사))

- 스위스를 가서 정말 놀라웠던 점은 스위스인은 기본적으로 3개 국어 이상을 한다는 점이었다. 지금까지 다녀 본 유럽 국가들은 모국어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스위스인이 다중 언어를 쓸 수 있는 것에는 슬픈 이유가 있다. 스위스는 과거에 여러 나라 사이에 끼어서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스위스에는 독일계 64%, 프랑스계 19%, 이탈리아계 8%의 인종들이 살고 있다.) 스위스는 카이사르에 정복되어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고, 5세기 경에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의 지배도 받았었고.. 10세기 부터 11세기에 걸쳐 '신성로마제국'의 일부가 되었던 적도 있었다.. 13세기에는 '함스부르크'가 동부 스위스를 지배 했었던 적도 있고...[출처] [여자혼자 유럽여행] 루체른, 작지만 아름다운 호반 도시|작성자 크림쿠키
- 루체른은 정말 **새가 많은 마을**

以下-[출처]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KKL-장 누벨|작성자 규철

- 루체른은 취리히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져 기차로 70분 걸리는, 피에발트슈테드호숫가에 펼쳐진 인구 7만여명의, 중세의 문화와 자연미 그리고 20세기의 문명이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천의 얼굴을 가진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이다. 1971년 화재 이후 1989년 새 건물로 단장한 루체른 중앙역에 내리면 바로 앞에 있는 피에발트슈테드 호수를 시작으로 도시의 중심에 로이스강(Reuss)이 도시를 남북으로 나누고 있다. 로이스강에는 1333년에 건설되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로 알려진 카펠교가 675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루체른의 랜드마크 카펠교는 천정을 장식하고 있는 그림과 과거 감옥, 문서보관소, 보물금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물의 탑(Wasserturm)'으로 더욱 유명하다.
- 다리를 건너 구시가지로 들어서면 바이런,바그너가 여행하며 사색에 잠기던 곳으로 스위스의 건국과 윌리엄 텔에 관한 전설이 아직도 전해지고, 호수변으로는 16세기에 번성했던 예술기법으로 채색된 벽화들이 좁은 골목과 화려한 광장을 장식하고 있어 중세의 체취가 물씬 풍겨온다.
- 루체른은 인터라켄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면서 필라투스 등산케이블을 타러가는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가 1866년부터 6년간 살면서 오페라 '마이스터징어', '니벨룽의 반지'를 작곡한 곳이어서 오페라와 인연이 깊어 오랜 전통의 루체른 음악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마땅한 오페라극장이 없어 '제1회 루체른 음악제'는 바그너가 살았던 호숫가의 빌라 트립센(Tribschen)에서 열렸다. 이는 유럽의 거의 모든 음악제가 오페라 축제인데 반해 루체른 음악제가 교향악단 위주로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빌라는 지금은 바그너 박물관으로 꾸며져 '피카소박물관', 735년에 건립된 '호프교회', 1386년에 건립되어 지금은 많이 소실되고 900여m만 남은 '무제크성벽',프랑스혁명 당시 루이16세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했던 786명의 용병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빈사의 사자상'등과 함께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 특히 KKL 덕분에 루체른에는 음악 축제가 거의 연중 무휴로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1988년부터 시작되어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주로 종교음악과 교향악 위주로 열리는 부활절

음악제, 8월중순부터 5주간의 여름휴가시즌에 열리는 루체른 페스티벌, 추수감사절(11월말)에 피아노 독주회 위주로 꾸며지는 추수감사절 음악축제등 관광객을 겨냥한 다양한 음악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 KKL은 루체른 중앙역 오른쪽의 인접한 대지에 건립되었고 카펠교에서는 30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KKL 바로 앞에 유람선 선착장이 있어 루체른을 찾은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곳이 바로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KKL)인 것이다.[출처]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KKL-장 누벨|작성자 규철

○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 감동적인 바위 : 사자기념비

- 호프교회 북쪽의 작은 공원 안에 있는 사자상으로, 프랑스혁명 당시인 1792년 8월 10일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머물고 있던 궁전을 지키다가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덴마크 조각가 토르발센의 작품으로 1821년 독일 출신인 카스아호른에 의해 완성되었다. 스타르크 트웨인은 이 사자기념비를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도 감동적인 바위"라고 묘사하였다.

○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목조다리 : 카펠교(Kapellbrücke)

- 1333년 로이스강에 놓인 다리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나무다리로 길이가 200m에 이른다.
- 위를 덮고 있는 지붕의 들보에는 스위스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루체른 수호성인의 생애를 표현한 112매의 삼각형 판화 그림이 걸려 있다.
- 다리 중간에 있는 팔각형 **석조의 바서투름(물의 탑)**은 등대를 겸한 루체른 방위 탑으로, 위급할 때에는 시민에게 경종을 울려 알리는 종각과 감옥소 또는 공문서의 보관소 등으로 쓰였다.





- 카펠교 안 천장을 보면 루체른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과 수호신을 그려놓은 하인리히 베그만 Heinrich Wagman의 111개의 판화 작품을 볼 수 있다[출처] [여자혼자 유럽여행] 루체른, 다시 찾은 카펠교|작성자 크림쿠키

○ 루체른 여름 음악제

- 커다란 분수가 물을 뿜어올리는 음악회장인 쿤스트하우스 앞에는 참가국의 국기가 게양되고,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으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역 앞의 반호프 광장에서 대안으로 가는 넓은 제 다리가 루체른 호수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로이스 강과 호수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 넓은 다리도 만국기로 장식된다. 이 다리를 건너가면 오른쪽에 마로니에 가로수가 있는 호반 길 슈바이처호프 케로 연결되고, 여기서는 백조들이 이리저리 노니는 것을 구경할 수 있다.
- 이 길을 계속 가면 나치오날 케인데, 둥근 음악당이라고 불리는 야외극장과 카지노, 그리고 고급 호텔이 줄지어 있어 국제적인 휴양지임을 느끼게 한다. 제 다리 왼쪽, 곧 로이스 강 북안은 루체른 구 시가지로, 좁은 길을 끼고 유적들이 남아 있다. 오래된 집 벽에 그려진 벽화, 구 시가지를 둘러싼 중세 때의 성벽이 있고, 강 남쪽은 비교적 새로 지은 건물들이 있어 근대적인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 그밖에 루체른 음악제는 로이스 강의 라트하우스 교 남쪽에 있는 소극장 시립극장에서도 열린다. 1837년 실러의 〈빌헬름 텔〉을 개관 공연으로 올린 유서 깊은 극장으로, 1924년 화재가 나서 2년

후에 재건하고, 1970년과 1984년에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 호수 북쪽 언덕에 두 개의 탑이 있는 호프 교회에서도 교회음악이 연주된다. 735년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로 창건되어, 14세기에 고딕 양식으로 바뀐 후 1633년에 화재로 크게 손상되었다. 뾰족한 쌍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교회는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색을 가졌다는 4천 950개의 파이프를 가진 오르간이 유명하다. 루체른 음악원은 19세기에 지어진 한 저택을 교사(校舎)로 활용하여 1942년에 창설되었는데, 루체른 음악제 기간 중에는 젊은 연주가를 위한 강습회가 열린다.

○ 유람선 선착장과 피어발트슈테터 호수 viewaidstatter see

○ 루체른 문화컨벤션센터(KKL Luzern)

- 건립 배경과 진행사항

- KKL이 들어선 자리는 원래 호텔·우체국·미술관을 거쳐, 1934년 완공었고 설계자가 아르민 메일리(Armin Meili)로 알려진 '아트 앤 컨벤션 센터'가 있던 곳이다. 루체른 페스티벌은 줄곧 이곳에서 열려왔다. 하지만 거의 연중 무휴로 늘어나는 음악제를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게다가 1980년 건물에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어 1988년 새로운 콘서트 홀 건립을 위한 재단이 출범했고 출판업자 알리스 부커(Alice Bucher)가 96만 스위스 프랑을 루체른 시에 기부하면서 공연장 신축을 위한 작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89년 실시된 설계 공모전에서 Jean Nouvel & Emmanuel Cattani(JNEC, 장 누벨의 1989~1994년까지의 회사)이 우승을 차지했다.
- '아트 앤 컨벤션 센터'는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건물을 아예 헐어 버리기로 하고 1993년 11월 루체른시는 9400만 스위스 프랑의 KKL 건립 예산안을 승인했다. 루체른 주는 2400만 스위스 프랑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 1994년 시민투표에서 65.7%의 찬성으로 예산안이 확정되어 1995년 1월 기공식과 함께 착공되었다. 1998년 8월19일 Claudio Abbado의 지휘아래 베르린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과 함께 콘서트홀을 오픈하고 2000년 루체른 미술관을 포함한 전관이 오픈되었다. 총공사비는 2억 500만 스위스 프랑(약 1,400억원)의 당초 예산에서 3,250만 스위스 프랑이 초과된 2억 2,650만 스위스 프랑이 소요되었다. 공사 기간 중 '루체른 페스티벌'을 대형 천막에서 치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루체른 중앙역에서 5km 떨어진 제철소에 1800석자리 임시 공연장을 마련하여 행사를 치루었다. 2003년 루체른시의 투표에서 55.8%의 찬성으로 KKL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800만 스위스 프랑의 예산을 확보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라운지 씨빠를 재오픈하였다.
- 2004년 월드 카페&레스토랑 "RED"가 오픈되어 모든 편의시설까지 완비되었다.
[출처]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KKL-장 누벨|작성자 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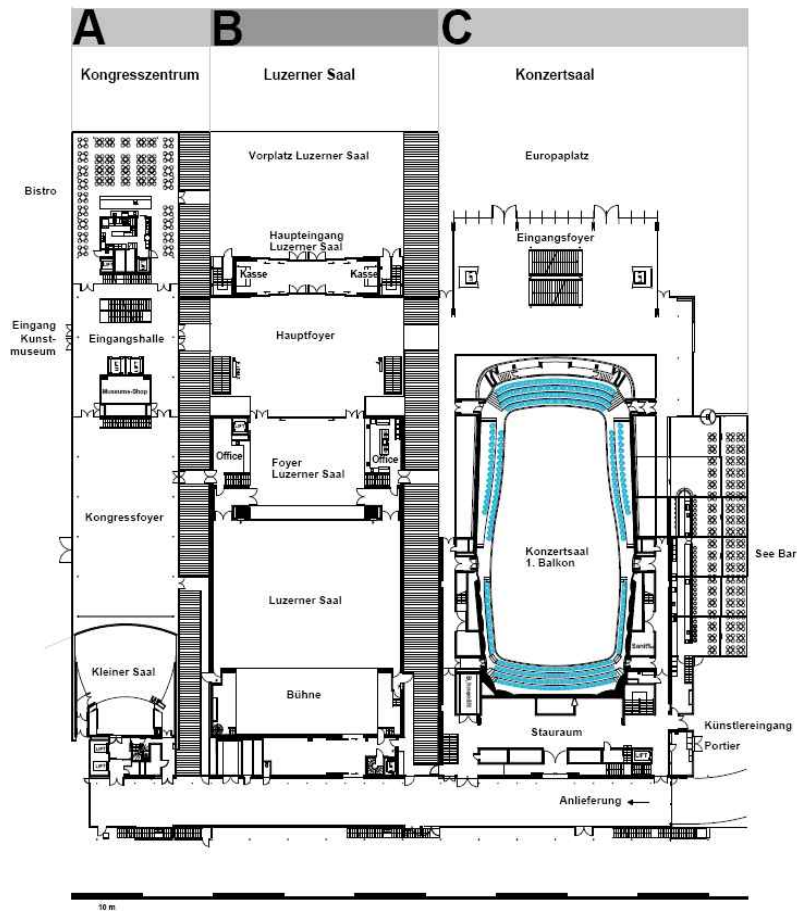




Gesamtübersicht

Niveau 0

- Trakt A - Kongresszentrum und Kunstmuseum
- Trakt B - Luzerner Saal
- Trakt C - Konzertsaal und Seebad



- 컨셉

- 새로운 콘서트홀의 원래 계획은 배가 호수로 미끌어져 들어가는 형상이었다. 그러나 호안선변경을 금지한 도시계획법과 환경파괴등의 생태학적인 이유로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에 누벨은 '내가 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나에게 물이 오도록 하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유람선 선착장 옆으로 장소를 옮겨 두개의 수로를 만들어 물을 빌딩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수정했다. 이 두개의 수로에 의해 건물은 콘서트홀, 다용도 루체른홀, 컨벤션센터로 삼등분되었다. 이렇게 독립된 세개의 대형 홀은 각각 자신의 독창적 풍모를 지닌 채 도크속의 배처럼 나란히 정박해 있다. 12,000㎡의 넓이의 지붕에서 돌출된 30m의 대형 칸틸레버는 철 구조물의 날카로움을 희석시키려는 듯 모서리로 갈수록 점점 얇아져 불과 몇 센티미터의 두께로 마감되어 소멸된다.
- 누벨은 시선의 각도와 빛의 투사각에 따라 좌우되는 빌딩의 조망과 전체적인 느낌을 고려하여 알루미늄패널을 천정의 마감재로 사용하여 천정 라인은 호수의 파도에 투영되어 비춰지고 천정의 알루미늄 패널에는 호수의 물결이 거울처럼 비춰지는 상호작용을 연출했다. 이 아이디어는 누벨이 의도하는 주된 감동이다. 그렇다. 이 건축물을 관류하는 주 컨셉은 수로를 이용하여 호수의 물을 빌딩으로 데려와서는 호수위로 돌출된 지붕에까지 이르게 하는 빛과 투영의 상호작용인 것이다. 건물 전체의 투명성과 콘서트홀 내부의 불투명성의 극명한 대비도 하나의 컨셉이다. [출처]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KKL-장 누벨|작성자 규철

- Building Elements

- KKL은 수로에 의해 크게 콘서트홀과 다목적 루체른홀, 그리고 미술관,회의실,카페등이 있는 컨벤션센터의 세 동으로 분리되었다가 넓게 돌출된 지붕에 의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구조이다. 누벨은 콘서트홀의 로비는 물론 객석까지 자신이 좋아하고, 유럽의 대형극장이나 오페라하우스의 느낌을 줄 수 있는 보르도 적포도주의 심홍색과 진청 그리고 진록색으로 꾸미려고 했으나 건축 위원회에 참가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좀더 부드러운 색깔을 원해 실내 벽면 마감은 흰색으로 처리하고 1층 무대와 그 벽면은 붉은 톤의 유광 나무판넬로 마감하였다.
- 외벽은 직사각형이나 콘서트홀 내부는 현악기형태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설계되었다. 콘서트홀 로비에 직사각형으로 낮고 길쭉하게 설치된 창문은 누벨이 보여주고 싶은 루체른호수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담겨있다. 바깥에서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풍경들이 누벨의 창문을 통해 편집되고 절제되어 비로소 더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콘서트홀로 향하는 복도는 홀에 들어섰을 때의 웅장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 음향 컨설팅은 미국 ARTEC사의 러셀 존슨이 담당했다. 두 개의 문을 거치아만 출입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출입구는 음향차단실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관중석에선 완벽에 가까운 고요함을 경험하게 한다. 내부벽면은 음각, 양각처리를 한 수 많은 석고판으로 마감하여 소리를 흡수하고, 벽체가

개폐되면서 잔향시간과 볼륨을 30%까지 조절할 수 있는 반향실을 갖추었다. 우주선 모양의 음향 반사판을 별빛처럼 무대위 천정에 매달아 연주자들이 자신들이 연주하는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의자 밑에 설치한 공기조절 시스템으로 완벽에 가까운 소음 방지 능력을 확보하였고, 천장을 5층 규모로 높이고 balconi의 깊이는 최소한으로 줄여 폭:높이:길이의 비율을 1:1:2에 맞추었으며 호수의 모터보트가 내는 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무대를 호수면보다 낮게 설계하였다.

- 이를 통해 교향악단·합창단 뿐만 아니라 실내악·독주회·오르간 독주회에서도 최적의 음향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러셀 존슨의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1개의 콘서트홀로 3~4개의 공연장을 갖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KKL에는 대극장·소극장이 따로 없다.
- 루체른 홀은 푸른빛의 나무 바닥재와 블랙박스의 묘한 어울림으로 특유의 카리스마를 뽐내며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 되었다. 중앙역과 접해 있고 미술관이 있는 컨벤션 센터의 외장은 르 꼬르뷔제의 차양막 개념인 brise-soleil의 변종같은 격자무늬의 투명스크린로 파사드가 연출되었다.

- KKL 개요

- 상주단체: 루체른 국제음악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2003년창단), 루체른 피아노 페스티벌, 루체른 부활절 페스티벌
- 객 석 수: 콘서트홀 1840석,
루체른 홀 740석(스탠딩 800석, 세미나 330석, 연회 450석),
컨벤션센터 270석
- 개 관: 1998년 8월 19일
- 건 축 가: 장 누벨(Jean Nouvel. 프랑스)
- 음향 컨설턴트: 러셀 존슨(ARTEC. 미국)
- 부대시설: 루체른 미술관, 레스토랑 RED, 월드 카페, Seebars, Waterfront

2-2. 리기산(Mt. Rigi)

- 웰빙 산악지형 개발, 산들의 여왕 : 리기산(정상은 리기쿨름(Rigi Culm))-(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높이는 1,797m이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산들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여름과 겨울에 스키나 썰매를 타려는 사람들이나 하이킹족이 많이 찾는다.
 - 톱니 궤도식 철도가 골다우(Goldau)역과 비츠나우(Vitznau)역에서 출발하고, 베기스(Weggis)에서는 케이블카가 운행된다. 유럽에서 산악열차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며 루체른호에서의 보트를 비롯해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이 연결된다.
 - 여름에는 면적 90km² 지역에 휴양, 스포츠 지대가 형성되며, 잘 관리된 다양한 하이킹 코스나 산길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의 전망까지 잘 바라보인다. 자동차 운행은 금지되어 있다.

2-3. 루가노(Lugano)

- 개요(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이탈리아의 밀라노 북쪽 약 83km, 인구 56,719(2008). 루가노호반에 위치하며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아름다워 피서지로서 널리 알려졌다.
 -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 섬유·제재·인쇄업 외에 피혁제품·초콜릿·비스킷 등의 제조도 성하다.
 - 주민의 대부분이 이탈리아계로, 정치적으로는 1512년 이래 스위스에 속했으나, 건물과 생활양식은 이탈리아적인 데가 많다.
 - 13세기에 창건된 산로렌초 성당 및 1499년 창건된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이 있다.
 - 특히 이곳은 남알프스의 관광 중심지로 봄부터 가을에 걸쳐 관광객이 많으며 대안(對岸)의 캄피오네는 이탈리아의 비지(飛地)로 이탈리아 국영 4대 카지노 중의 하나가 있다.

○ 마리오 보타 건축작품

- **마리오 보타**는 유럽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자연을 디자인 컨셉으로 한다.
- 마리오 보타의 초기 작품들인 루가노에 있는 주택들은 마치 요새 같은 현관과 육면체의 측면 또는 윗면에 넓은 개방구를 뚫어 반사광을 통해 채광도 부족하지 않은 집들이다.
 1. Central Bus Terminal, Lugano
 2. Banca del Gottardo Viale Stefano Franscini 3235

○ 루가노 문화박물관

- 인류학, 민족학에 관한 자료를 소장·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스위스 남부 티치노주(州) 루가노에 있는 미

술관이다.

2-4. 모르코테 : 세레시오의 진주, 고대 귀족 건물의 집합소

- 루가노 호수와 인접해 있다. 작은 골목들과 아치형의 고대 귀족 건물들, 가치있는 건축기념물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호수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르코테는 세레시오의 진주로 불린다.
-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의 걸작으로 불리는 '산타 마리아 델 샷소 교회'는 404단의 계단을 오르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이탈리아령에 속하는 루가노 호수 안쪽까지 조망가능. 루가노에서 포스트버스로 약 35분 거리. [출처] [스위스여행-5일] 루가노근교 - 모르코테 (Morcote) - 정말 예쁜 호숫가 마을 |작성자 탄두리





2-5. 수변공간 개발 : 코모 호수

- 면적은 146 km²이며, 이탈리아에서 3번째로 넓은 호수이다. 로마시대 부터 귀족들의 휴양지로 인기가 많았다. 현재도 예술가 등의 자주 찾는 인기 있는 곳이다. 이름은 라틴어 'Larius', 이탈리아어 'Lario'가 있지만 거의 쓰이지 않고, 'Lago di Como(코모 호수)'라고 불린다. 가이드 북에는 'Lake Como', 'Lake of Como', 'Como Lake'라고 표기되어있다. 호수 이름은 마을 이름 'Como'에서 온 것이며, 로마 시대 때는 'Comum'라고 불렀다. 근처에 Villa Olmo, Villa Serbelloni, Villa Carlotta와 같은 별장과 저택등이 많다. 현재 유명인사들이 이 근처에 별장 등을 가지고 있으며, 마돈나, 매튜 벨라미, 조지 클루니, 지아니 베르사체, 벤 스피스 등이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한다
 - 최대 길이 : 46 km, 최대 너비 : 4.5 km, 평균 깊이 : 154 m, 최대 깊이 : 410m
- 호수는 인근의 코모공원(Como Park)과 함께 1세기가 넘도록 시민들을 위한 휴양지로 이용된다. 호수 이름은 1848년 현지 농부인 찰스 페리(Charles Perry)가 지었다. 코모공원 동물원과 온실을 포함한 다양한 명승지가 호수의 특색이다. 코모호수에서 유람선을 타고 도시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코스가 있다.
- 수변 공간을 활용한 건축물 : villa olmo
 - Villa Olmo는 Innocenzo Odescalchi 후작이 건축가 Simone Cantoni에게 의뢰하여 1797년에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Como 호수를 따라 건설되었으며 귀족들의 피서지로 설계되었다. Villa의 이름인 Olmo

는 정원 가운데 심어진 elm(느릅나무)로부터 유래됐다.

Villa Olmo는 전시회 기간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호수 옆 정원은 낮 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10/14 (화) Day 4	꼬모	07:15~08:15	조식
		08:15~12:00	꼬모 - 몬테로소(친퀘테레) 이동 (268km)
	몬테로소 (친퀘테레)	12:00~13:30	중식
		13:30~14:00	몬테로소(친퀘테레) - 마나롤라(친퀘테레) 이동 (7km)
	마나롤라 (친퀘테레)	14:00~15:30	◆<세계문화유산> 생태 마을 조성 : 친퀘테레 ◆아름다운 해안 마을 : 마나롤라(친퀘테레)
		15:30~15:45	마나롤라(친퀘테레) - 리오마조레(친퀘테레) 이동 (2km)
	리오마조레 (친퀘테레)	15:45~16:30	◆중세의 맛을 간직한 마을 : 리오마조레(친퀘테레)
		16:30~17:00	리오마조레(친퀘테레) - 라스페치아 이동 (8km)
	라스페치아	17:00~19:45	라스페치아 - 밀라노 이동 (221km)
	밀라노	19:45~21:15	석식
		21:15~	호텔로 이동 후 숙박

※ 몬테로소 [Monterosso]

- 이탈리아 북부 리구리아(Liguria)주에 위치하는 라 스페치아(La Spezia) 지방의 자치마을로 친퀘테레(Cinque Terre)에 속하는 5개 마을 중 하나다. 마을의 면적은 11Km²이고 인구는 1563명 정도 거주한다.
- 해안의 대부분은 모래 해변으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 선호하는 곳으로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친퀘테레(Cinque Terre)에서 유일하게 모래 해변이 넓은 곳이다.
- 또한 마을을 따라 심어 있는 많은 레몬 나무와 화이트 와인, 포도, 올리브 등이 유명하다. 마을은 도보용 터널을 기준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뉜다. 마을을 외부와 연결하는 주된 수단은 1870년 정부에 의해서 건설된 철도다. 마을의 구시가지에는 제노바 공국 시대의 성의 일부가 남아 있고 세례 요한(St. John the Baptist) 교회는 회중석과 두 개의 복도로 이루어진 바실리카(Basilica) 풍으로 외벽과 정문에는 프레스코(Fresco) 기법으로 그려진 '세례의 예수'의 초상화가 있으며, 4개의 작은 대리석 기둥과 네모난 모양에 꼭대기는 왕관 모습을 한 오로라(Aurora) 탑 등이 있다.
- 과거 무슬림과 바이킹으로부터 자주 침략을 당한 마을은 흰 피부에 붉은 머리 색깔의 어린이가 이따금씩 태어남으로써 바이킹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많은 청년들이 히틀러와 무솔리니(Mussolini)에 대항하여 레지스탕스(resistance) 활동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3-1. 마나롤라(Manarola): 생태마을 조성, 친퀘테레,

○ 개요

- 친퀘테레(Chinque Terre)는 5개의 마을이라는 의미로 5개의 해변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립공원으로 보호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몬테로소(Monterosso al Mare), 베르나차(Vernazza), 코니글리아(Corniglia), 마나롤라(Manarola), 리오메기오레(Riomaggiore)
- 친퀘테레는 18Km에 이르는 가파른 바위 해안을 따라 계단식의 언덕과 농장, 과수원이 있는 리비에라(Riviera) 해안에 위치하는 5개의 작은 마을로, 바다 위 언덕에 있는 오래된 도보용 도로와 노새 길은 올리브 나무 숲과 포도 농장, 과수원, 밤나무 숲이 있다. 각 마을은 라 스페치아(La Spezia)에서 제노바로 향하는 기차로 연결되어 있고 몇 분의 거리에 있으며 리오메기오레(Riomaggiore)와 몬테로소(Monterosso) 사이의 철로는 터널로 연결되어 있다. 올리브 오일과 와인을 생산하고 포카치아(Focaccia)라는 지역 특산 빵이 있다.
- 마나롤라(Manarola)는 이탈리아 북부의 리구리아 주 라스페치아 현에 있는 마을이다. 친퀘테레 국립공원의 일부이며, 해변을 따라 센티에로 아주로(Sentiero Azzuro, 푸른 산책길)가 있고, 1338년에 건축한 산 로렌초 성당이 있다.







3-2. 리오마조레(Riomaggiore) : 중세의 맛을 간직한 마을

○ 개요

- 리오마조레(Riomaggiore)는 이탈리아 라스페치아 현에 있는 마을이다. 마이오르 강이 흐르며, 피날레 광장과 체리코 언덕, 바티스타 성당이 있다.
- 중세에 건설된 마을이다. 집들은 마조레 개울(지금은 복개된)을 따라 줄지어 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세인트존 침례 교회(St John the Baptist, 1340)와 1260년에 건설되기 시작한 성채가 있다.

※ 라스페치아[La Spezia] :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리구리아주(州)에 있는 도시

- 옛이름은 스페치아(Spezia)이다. 제노바 남동쪽, 스페치아만(灣)의 끝부분에 위치하며, 리비에라 동쪽 끝에 있는 휴양지이다. 중세부터의 해항으로 일찍이 조선업이 발달하였으며, 상업·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전기기가·탄약·피혁·의료·식품 제조가 활발하며, 최근에는 대규모 정유소도 건설되었다. 석탄·석유와 리비아의 천연가스 등이 이 항구를 통해 수입된다.
- 로마제국 시대부터 있던 도시였으나, 피에스키가(家)가 제노바에 매도한 1276년 이전까지의 역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1857년에 제노바의 해군기지를 이곳으로 옮긴 후부터 근대적인 군항이 되었으며, 1923년에 현청 소재지가 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기지도 있다.

- 유명한 건축물로 중세 때 건축된 산조르조성(城)과 15세기에 지어진 대성당, 1861~1869년에 건축된 해군공작창 및 해군박물관이 있다. 고고학박물관에는 사람의 형체로 조각된 선돌과 인근의 고대도시 루니에서 출토된 로마의 옛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심한 피해를 입었다. 배후지(背後地)에 산이 많아 포 평원과의 소통이 용이하지 않다. [네이버 지식백과] 라스페치아 (두산백과)

10/15 (수) Day 5	밀라노	07:15~08:15	조식
		08:15~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건축 디자인 :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현대적 도시 건축 디자인 : Milano Convention Center ◆도시 발전과 과학 :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 기술 박물관
		10:15~13:30	밀라노 - 베네치아 이동(272km)
	베네치아	13:30~15:00	중식
		15:0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 : 산마르코 광장 ◆<세계문화유산>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도시 건축 : 두칼레궁전 ◆<세계문화유산> 고대의 교량 : 베네치아 탄식의 다리 ◆수변공간체험 : 곤돌라
		19:00~20:30	석식

4-1. 밀라노

○ 개요

- 포강의 지류인 티치노·아다두 하천 사이의 비옥한 평야부에 자리한다.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서 발달한 북이탈리아 공업지대의 중심도시이다. 켈트인의 취락에서 기원하여 로마시대에는 메디올라눔이라고 불리는 북부 이탈리아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다. 374년에 성(聖)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의 대주교가 되면 서부터 밀라노는 북부 이탈리아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다. 성(聖)암브로시우스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밀라노의 수호성인(守護聖人)으로 추앙받고 있다. 5~6세기에는 훈족 고트족의 침입으로 시가지가 파괴되고, 다시 랑고바르드족의 점령하에 들기도 했다. 샤를마뉴의 치하(治下)에 들게 된 무렵부터 밀라노 대주교의 권력이 강대해지고, 따라서 전란을 피하여 성벽으로 둘러싸인 밀라노로 몰려드는 인구도 증대하여, 11세기에는 롬바르디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1163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에 의해 시가지가 파괴되었으나, 밀라노는 롬바르디아동맹에 가담하여, 1176년 레냐노 싸움에서 황제의 군대를 무찔렀다.
- 그 뒤, 롬바르디아의 도시들은 다시 서로 반목하게 되고, 또 밀라노에서도 여러 세력이 분열하여 기벨린당(黨)과 겔프당의 분쟁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밀라노에서는 직물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또 근교의 농촌에서는 토지개량이 진척되어, 롬바르디아에 있어서의 밀라노의 경제력은 다른 도시들을 크게 압도하였다. 1277년 귀족세력의 지지를 받은 비스콘티가(家)가 밀라노의 영주가 되

어, 그 후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1447년 그 집안의 남계후손(男系後孫)이 끊길 때까지 밀라노에 군림하였다.

- 3년의 공화제(共和制) 뒤에, 비스콘티가의 장군이었던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영주가 되어, 그 후 1535년에 에스파냐의 지배하에 들어가기까지, 스포르차가의 지배가 지속되었다. 그 동안 대성당의 건축이 진척되고, 운하가 개통되는 한편, 브라만테, 레오나르도 다 빈치 등을 비롯한 문인·예술가들이 이 도시에 모여들어 밀라노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그 후 에스파냐·오스트리아·프랑스의 지배를 거쳐, 1861년에 이탈리아왕국에 통일되었다. 1714년의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쟁까지 지속된 에스파냐 지배시대와 나폴레옹 지배시대(1796~1814)를 제외하고 이탈리아 통일까지 지속된 오스트리아 지배시대에 밀라노는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롬바르디아 상인(商人)이 유럽 각지로 진출하였다.
- 그러나, 그 동안 밀라노는 이탈리아 역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위는 상실하고 있었다. 밀라노의 근대공업은 19세기 후반에 발전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섬유공업의 바탕 위에, 1880년대에는 알프스 산록의 수력발전을 기초로 하여, 금속공업·화학공업·기계공업 등의 중화학공업이 발달함으로써, 이탈리아 최대의 공업도시가 되었다. 공업지대는 시의 북부, 그리고 북부교외에서 서부·동부교외로 발전하여, 이탈리아 최대의 대도시권(인구 404만)을 형성하고 있다.
- 모든 종류의 공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공업지대를 이루고 있으나, 특히 화학·섬유·기계공업이 두드러진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시가지의 많은 부분이 폭격의 피해를 입었으나, 중앙역(驛)을 중심으로 한 지대는 근래 고층건물이 줄을 지은 오피스가(街)로 변모되고, 지하철도 정비되어, 로마와는 다른 근대적인 상공업도시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밀라노의 많은 역사적인 건조물 가운데 4세기 말에 창설된 성(聖)암브로시우스성당, 백대리석 고딕양식의 밀라노대성당, 브라만테의 손이 가해진 성(聖)마리아성당과 그 성당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벽화 《최후의 만찬》 등이 유명하다. 문화의 중심지로 오페라극장인 라스칼라극장, 4개의 대학, 많은 미술관 등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밀라노 [Milano] (두산백과)

※ 온도: 8.4-18.8, 강수량: 99.7

○ 도시 건축 디자인 :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 1865년에 착공하여 1877년에 완공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Galleria Vittorio Emanuele II)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쇼핑몰이다. 아케이드 형식으로 되어있다. 내부에는 거대한 아치형 유리 지붕이 덮여있어서, 실내라도 언제나 자연채광을 받으면서 걸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 현대적 도시 건축 디자인 : Milano Convention Center

- 2002 년에 설립 된 컨벤션센터 밀라노 시내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인 전시 컨벤션 장소 중 하나이다. 주요 전시 공간은 80,000 평방미터이며 2만5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6개 회의실이 있다.

○ 도시 발전과 과학 :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 기술 박물관

-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립 과학 기술관은 1953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기념전시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과학적 사고의 발달과 공업 기술의 발전을 소개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 설립된 과학 기술 박물관이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과학기술 박물관이다. 16세기 수도원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총 4만㎡의 면적에 1만여개의 전시품을 전시하고 있다. 재료, 수송, 에너지 등 총 7개의 주제와 14개의 전시분야, 13개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 두오모 성당

- 갈레아초 비스콘티의 명령, 500년 간 건축, / 길이 158m 높이 109m 너비 93m / 3600여개 조각상

4-2. 베네치아

○ 개요

- 영어로는 베니스(Venice)라고 한다. 베네치아만(灣) 안쪽의 석호(潟湖라군) 위에 흩어져 있는 **118개의 섬들이 약 400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다. 섬과 섬 사이의 수로가 중요한 교통로가 되어 독특한 시가지를 이루며, 흔히 ‘물의 도시’라고 부른다. 대안의 메스테르와는 철교·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나, 철도역은 철교가 와 닿는 섬 어귀에 있고, 다리를 왕래하는 자동차도 시내에는 들어올 수 없다. 시가지는 본래 석호의 사주(砂洲)였던 곳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고, 따라서 근래 지반침하와 석호의 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베네치아의 역사는, 567년 이민족에 쫓긴 롬바르디아의 피난민이 만(灣) 기슭에 마을을 만든 데서 시작된다. 6세기 말에는 12개의 섬에 취락이 형성되어 리알토섬이 그 중심이 되고, 이후 리알토가 베네치아 번영의 심장부 구실을 하였다. 처음 비잔틴의 지배를 받으면서 급속히 해상무역의 본거지로 성장하여 7세기 말에는 무역의 중심지로 알려졌고, 도시공화제(都市共和制) 아래 독립적 특권을 행사하였다.
- 10세기 말에는 동부지중해 지역과의 무역으로 얻은 경제적 번영으로 이탈리아의 자유도시들 중에서 가장 부강한 도시로 성장하였다. S자형의 대운하가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고, 출구 쪽의 운하 기슭에 장대한 산마르코 광장(廣場)이 자리한 기본적인 도시형태는 산마르코 대성당을 비롯한 교회·궁전 등과 더불어 13세기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산마르코 대성당의 5개의 원형 지붕에서 볼 수 있듯이, 베네치아의 몇몇 건축물에서는 동방의 영향을 반영하는 비잔틴풍(風) 또는 오리엔트풍의 건축양식을 볼 수 있다.
- 베네치아는 십자군(十字軍) 원정에 힘입어서 동방무역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현재 그리스의 여러 섬들을 비롯한 동부지중해 지역에 영토를 확대함으로써 14~15세기 초에 해상무역공화국으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 무렵의 베네치아 인구는 약 20만으로 추정된다. 공화국의 정치 중심이었던 두칼레

궁전이 완성된 것도 15세기였다. 16세기 이후, 투르크인에 의해 동부 지중해에서 세력이 약화되고, 따라서 베네치아는 점차 오늘날의 베네토주의 풍요한 농업지대의 중심 도시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도시경제의 쇠퇴와 페스트의 유행으로 16세기에는 인구가 10만으로 감소하였다. 1797년에는 나폴레옹 1세에 의해 점령되었고, 1866년에 이탈리아 왕국군에 점령되기까지 반 세기 이상은 오스트리아의 영토가 되었다.

- 19세기 후반부터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인 북부평야를 배후지로 하는 항구도시로 발전하였다. 상항(商港)은 서부의 철도역에 인접한 스타치오네 마리티마이나, 20세기에 들어와 대안에 공업항(工業港)으로 마르게라가 건설됨으로써, 마르게라메스트레 등 대안(對岸) 지역이 근대공업지대로 발전하였다. 대안의 공업지구는 현재 행정적으로는 베네치아시에 포함되어 있고, 유리세공업(細工業)으로 유명한 무라노섬, 국제영화제 개최지 및 해수욕장, 카지노 등으로 유명한 리도 등도 베네치아시에 포함된다. 베네치아의 구시가지는 지난날의 공화국 번영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산마르코대성당·두칼레궁전·아카데미아미술관 등은 미술·건축예술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베네치아는 로마·피렌체와 더불어 이탈리아의 중요한 관광지이다. 대학 및 시(市) 동부의 현대미술전시장에서의 국제비엔날레, 리도의 국제영화제, 페니체극장에서의 음악 등 문화활동도 활발하다. 그러나 구시가지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현대생활에는 편리한 환경이 될 수 없으므로 대안부의 도시화가 현저하다. 대안부의 공업은 화학·기계공업이 중심이며, 공업항을 포함한 베네치아항의 취급물량은 이탈리아 제3위를 차지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베네치아 [Venice] (두산백과)

※ 온도 : 9.4-18.1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 : 산마르코 광장

- 베네치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열주로 가득한 건물이 광장을 'ㄷ'자로 둘러싸고 있어 광장은 하나의 거대한 홀처럼 보이며, 나폴레옹은 이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홀)이라 불렀다. 광장의 가운데에는 베네치아의 수호신인 날개 달린 사자상과 성테오도르상이 있고 동쪽으로 산 마르코 대성당, 두칼레 궁전이 있다. 광장을 둘러싼 건물은 16세기 경 정부청사로 건립된 것으로 나폴레옹의 날개(알라 나폴레오니카)라고도 불리며, 현재는 박물관을 비롯해 오래된 카페, 살롱들이 들어서 있다. 그중 1720년에 개업한 카페 플로리안은 과거 바이런, 괴테, 바그너 등이 자주 들렀던 곳으로 유명하다.

○ <세계문화유산>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도시 건축 : 두칼레궁전

- 고딕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로 의의가 깊다. 과거 베네치아 공화국 총독의 관저였으며, 한때 공화국 정부의 청사였다. 외관은 흰색과 장미색 대리석으로 꾸며져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기품을 드러낸다. 내부에는 베네치아파 화가의 회화가 전시되어 있다. 2층 대회의실에서는 틴토레토의 작품 <천국>을 볼 수 있다.

○ <세계문화유산> 고대의 교량 : 베네치아 탄식의 다리

- 17세기에 만들어졌으며, 총독부가 있었던 두칼레 궁전과 피리시오니 누오베 감옥을 연결했던 다리다. 두칼레 궁전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죄수들이 이 다리를 건너면서 한숨을 내쉬었다고 해 ‘탄식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 수변공간체험 : 곤돌라

- 11세기부터 운행되어온 베네치아의 명물이다. 슬림한 선체와 평평한 바닥으로 좁고 얇은 운하를 지나기에 적당하다. 뱃머리가 아주 약간 왼쪽으로 꺾여 있는데, 이것은 노 젓는 힘을 줄이고 곤돌라가 뱅뱅 도는 것을 방지해준다. 특별한 날이면 곤돌라를 꽃으로 장식하곤 했다. 오늘날 곤돌라 승선은 매우 비싸, 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 산타마리아델라살루트교회

- 이탈리아 베네토주 베네치아. 대운하 어귀에 위치한 바로크 양식의 교회이며, 1630년에 유행한 페스트로부터 이 도시를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어졌다.

10/16 (목) Day 6	베네치아	07:00~08:00	조식
		08:00~13:00	베니스 - 인스부르크 이동 (387km)
	인스부르크	13:00~14:30	중식
		14:30~16:30	◆도시 건축 디자인 : 황금지붕 ◆고대 도시 건축 디자인의 종합체 : 호프부르크 궁전 ◆고풍스러운 중세 건물 거리 : 마리아 테레지아 거리
		16:30~18:45	인스부르크 - 뮌헨 이동 (163km)
	뮌헨	18:45~20:15	석식
		20:15~	숙소 이동 및 휴식

5-1. 인스부르크

○ 개요

- 인스부르크라는 이름은 인(Inn)강과 다리(Brucke)라는 뜻의 독일어를 합친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강(Inn river)위에 있는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로마시대부터 동부 알프스의 교통요지로서 발전하였다. 유럽에서 알프스 산맥에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이며, 빈(Wien), 그라츠(Graz), 린츠(Linz) 그리고 잘츠부르크(Salzburg)에 이어 오스트리아에서 다섯번 째로 큰 도시이다(11만8천명, 105km²).
- 1429년에 **티롤(Tirol)**의 주도가 되었고 1490년대에 막시밀리안 1세(Maximilian I)의 황실이 옮겨오면서 이 곳은 유럽의 정치, 문화 중심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1938년 나치(Nazi)에 합병되었으며,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계속된 폭격 시험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
- 구시가지는 이미 12세기에 건설되었으며, 15세기에는 지방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당시 이곳에 거소(居所)를 두었던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건조한 ‘황금의 지붕’은 지금도 시의 상징이다. 1500년에 지어진 '금의 지붕'(Goldenes Dachl)은 인스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로 건물 전면에 나와 있는 발코니의 지붕이 모두 금으로 덮여있는 독특한 건물이다. 1996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개의 탑이 인상적인 성 야콥 성당(Dom zu St. Jakob)역시 이 곳의 중요한 문화 유산이다.
- 철도·도로의 분기점으로서 교통상의 요지에 있으며, 천혜(天惠)의 수력을 이용해서 섬유·식품·주조(鑄) 등의 공업도 활발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성격이 뚜렷하여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964·1976년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 그 밖에 막시밀리안 1세의 묘비가 있는 호프 킬레교회, 1677년 설립된 대학, 페르디난트 박물관, 민예관(民藝館), 고산식물원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스부르크 [Innsbruck] (두산백과)

○ 도시 건축 디자인 : 황금지붕

- 후기 고딕양식의 건물의 발코니를 덮고 있는 지붕이다. 이곳은 페르디난드 4세가 1420년 티롤 주 영주궁궐로 지은 후,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2,738개의 동판자로 지붕을 덮게 해 1500년에 완공됐다고 한다. 막시밀리안 1세가 건물 바로 앞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만든 이 발코니에는 황제와 두 황비를 비롯해 궁중광대, 무용가 등의 모습과 문장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 고대 도시 건축 디자인의 종합체 : 호프부르크 궁전

- 호프부르크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겨울 궁전이였다. 루돌프 1세 황제를 시작으로 하여, 합스부르크 가는 600년 이상 오스트리아를 통치했다. 이 거대한 궁전은 13세기에 처음으로 건축되었으며 세월이 흐르며 점차 여러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통치자들이 대를 이어 갈수록 자신이 그 전 대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증축된 부분은 1900년대 초반의 결과물이다. 놀랍게도 신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과장된 건축 양식들을 섞어 놓았는데도 썩 잘 어울려서 궁전은 복잡다단하며 호기심을 자아내는, 꼭 방문해 보아야 할 장소로 손꼽힌다.

○ 고풍스러운 중세 건물 거리 : 마리아 테레지아 거리

- 인스부르크 시내를 가로지르는 중심거리로 북쪽으로 시내를 내려다 보는 Nordkette산의 바위벽의 풍경이 이 거리의 산책을 흥미롭게 한다. 신성로마제국 카를 6세의 장녀이며, 남편 프란츠 1세와 함께 통치했던 마리아테레지아 왕비의 이름을 딴 이 거리는 도시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다. 고풍스러운 중세도시의 건물들이 줄지어 있으며, 헤르초크 프리드리히 거리의 막다른 곳에서 인스부르크 상징인 황금지붕이 있다.

10/17 (금) Day 7	뮌헨	07:15~08:15	조식
		08:15~10:15	◆도시에서의 광장의 역할 : 마리엔 광장 방문 ◆도시 공공청사의 역할 : 신 시청사 방문 ◆현대적 건물 디자인 : BMW 박물관
		10:15~12:45	뮌헨 - 뮌베르크 이동 (230km)
	뮌베르크	12:45~14:15	중식
		14:15~18:00	◆<세계문화유산> 독일의 베니스 뮌베르크 : 뮌베르크 구 시가지 ◆도시 건축 디자인 : 뮌베르크 신궁전 ◆구 시가지 활용 : 뮌베르크 구 시청사
		18:00~19:30	석식
		19:30~	숙소 이동 및 휴식

6-1. 뮌헨

○ 개요(연혁)

- 바이에른 알프스 산지 가까이 이자르강(江)에 면하여 있다. 베네딕투스회(會)를 기원으로 하는 도시이다. 1157년 바이에른 공작이던 하인리히 사자공이 수도사들에게 잘츠부르크로부터 이자르강에 이르는 곳에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듬해 이자르강을 건너는 다리가 건설되었고 시장 주위로는 성이 구축되었다.
- 1180년 바이에른 공국을 계승한 비텔스바흐 가문에서는 1255년 뮌헨을 도읍으로 삼았다. 14세기 초 이 가문 출신으로는 최초로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된 루트비히 4세(Ludwig IV)에 의해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고, 14세기 말~15세기 초 선제후 막시밀리안 1세(Maximilian I) 치하에서 경제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30년전쟁(1618~1648) 중 한때 구스타브 2세 휘하의 스웨덴군에게 점령당하기도 하였고 (1632), 1634년에는 전염병 페스트가 창궐하여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 1825~1848년 재위에 있던 바이에른 국왕 루트비히 1세는 오늘날의 뮌헨을 기획하고 탄생시켰으며, 그가 선임한 건축가들로 하여금 공공 건축물을 통하여 뮌헨의 특징적인 모습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19세기에 도시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신교도들도 로마가톨릭의 도시였던 이곳에서 처음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1854년 10만 명에 불과하였던 인구는 1900년에 이르러 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어 루트비히 2세는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를 후원함으로써 음악과 무대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다.
- 비텔스바흐 왕조의 지배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8년 루트비히 3세가 퇴위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그 후 뮌헨은 우익 정당들의 온상이 되었으며,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나치스당에 가담하여 그 지도자가 되었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1923년 바이에른 당국에 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려고 모의하던 장소인 맥주 창고는 아직 남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절반 가까운 건

축물이 파괴되었다.

- 구시가는 점차 기업 활동의 중심지가 되면서 과거의 특징을 많이 상실하였다. 아직도 남아 있는 건축물 가운데는 7개의 성문 중 카를스, 젠들링거, 이자어 등 3개가 있는데 모두 14세기에 세워진 것이다. 다른 중세의 건축물로는 원현대성당, 1468~1488년 건립된 프라우엔키르헤(Frauenkirche), 1470~1480년 건립된 구시청사 등이 있다.
- 부근에는 1169년 건립된 장크트페터성당이 있는데, 뮌헨에서 가장 오래 된 성당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을 복원한 것이다. 옛날 무기고였던 곳은 2000년 현재 시립박물관이 되어 있다. 이들 중세 건물 이외에도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의 건축물도 많다.

※ 온도: 8.9-13.2, 강수량: 65.4

○ 산업

- 바이에른 최대의 도시이자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금융·상업·공업·교통·통신·문화의 중심지이다. 식품가공, 정밀 광학기기, 전기제품, 화장품, 의류, 맥주 등의 제조업이 활발하다. 또 영화 제작과 도서 출판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유럽 최대의 도산매 시장도 자리 잡고 있다. 각종 행사와 회의가 자주 개최되고 있다.

○ 관광과 문화

- 독일 국제 공항 중 두 번째로 큰 국제공항인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 공항(Flughafen München-Franz Josef Strauß) 이 시가지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독일 내의 주요 도시와는 ICE(Inter City Express)라 불리는 고속철도를 통해 잘 연결되어 있으며 EC(Euro City Express)를 통해 유럽의 주요 도시들과의 교통편이 잘 발달되어 있다.
- 시가지에는 마리엔 광장을 중심으로 관광명소가 몰려있다. 신시청사(Neues Rathaus)는 네오고딕 양식으로 건립되었고 총 85m의 탑과 종루의 특수 장치 인형 시계가 유명하다. 옛 바이에른 왕가의 궁전이 었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레지덴츠 궁(München Residenz Palace)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등 다양한 양식으로 장식된 100여 개의 방에 미술품과 보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 다른 유명 미술관으로는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가 있으며, 이외 관광 명소로 독일 자동차 브랜드 BMW의 박물관, 영국정원(Englischer Garten) 등이 있다.
- 뮌헨에서는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가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걸쳐 열린다. 옥토버페스트는 10월을 뜻하는 '옥토버(Oktober)'와 축제를 뜻하는 '페스트(fest)'의 조합으로, 1810년 경 바이에른 왕국의 빌헬름 1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를 연 것이 이 축제의 기원이다.

○ 도시에서의 광장의 역할 : 마리엔 광장 방문

- 뮌헨 여행의 중심지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보행자 구역이라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광장 부근에는 뮌헨 신 시청사, 뮌헨 프라우엔 교회 등이 위치하고 있다.

○ 도시 공공청사의 역할 : 신 시청사(Neues Rathaus) 방문

- 마리에넨 광장에 위치한 지붕 한가운데에 가늘고 높은 시계탑이 솟아 있는 신 고딕 양식의 건축물. 높이는 85m. 중앙종루에는 독일 최대의 특수 장치 인형 시계인 글로켄슈필이 매일 오전 11시에 10분간 작동한다.

○ 현대적 건물 디자인 : BMW 박물관

- 원통형의 건물이 인상적인 BMW 박물관에는 초창기에 생산된 비행기 엔진부터 100여대가 넘는 BMW의 아심작들이 전시되어 있다. BMW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전시물들이 인상적이다.

6-2. 밤베르크

○ 개요

- 운하가 건설된 레크니츠강(江)에 면한 하항이며 뉘른베르크 북쪽 레크니츠강이 마인강에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3km정도 떨어져 있다. 인구 7만
- 바벤베르크(Babenberg) 가문의 고성이 있는 곳으로 902년 처음 문헌에 언급된다. 1007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하인리히 2세(Heinrich II)에 의하여 교구가 설치되었으며 13세기 중엽 주교가 제국의 영주가 되어 1802년까지 이곳을 관할하였다. 1802년 장·교 분리에 따라 바이에른에 귀속되었다. 한편 1459년에는 독일어로 된 책이 이곳에서 최초로 인쇄되었다.
- 상공업의 중심지이며 섬유, 전기기기, 의류, 기계, 맥주 등의 제조업이 활발하다. 주요 건축물로는 13세기에 건축되었고 황제 하인리히 2세와 교황 클레멘스 2세(Clemens II)의 무덤이 있는 대성당, 고딕 양식의 성당(14세기), 16세기와 18세기에 각각 건축된 두 주교 궁전 등이 있다. 주교 궁전 가운데 오래된 것은 이 지역의 역사 박물관, 새로 세워진 것은 미술관이 되어 있다. 그 밖에 여러 종교 건축물과 1453년에 처음 건립되고 1744~1756년에 재건된 구시청사, 바로크 시대 귀족의 주택 등이 있다.
- 1648~1803년 제수이트 계통의 대학이었던 신학교는 1972년 사범대학과 통합하여 기술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시민극장 건너편에는 시인이자 작곡가였던 E.T.A. 호프만(E.T.A. Hoffmann)이 1808년부터 1813년까지 생활한 주택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1817년 설치된 로마가톨릭교 대교구가 있으며 밤베르크교향악단과 자연사박물관도 유명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밤베르크 (두산백과)

○ <세계문화유산> 독일의 베니스 밤베르크 : 밤베르크 구 시가지

- 운하가 건설된 레크니츠강(江)에 면한 하항이며 뉘른베르크 북쪽 레크니츠강이 마인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유람선을 타고 종교 관련 건축물과 시청사, 궁전, 주택 등 옛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도시 건축 디자인 : 밤베르크 신궁전

- 밤베르크의 영주이자 주교였던 쾰른 백작 로타어 프란츠의 명으로 건축가 요한 디엔첸호퍼가 설계하여 1695년에 착공하여 1703년에 완공하였다. 네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쪽의 두 동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나머지 두 동은 바로크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궁전에 면한 넓은 광장은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앞에 밤베르크 대성당과 구 궁전(하인리히 2세 궁전)이 마주보며 서 있다. 밤베르크에 남아 있는 두 개의 주교 관저 중 옛 관저인 구궁전은 역사 박물관으로 바뀌었으며, 화려한 새 관저인 신궁전에는 귀중한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주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다. 신궁전의 명소인 장미 정원(로젠가르텐)은 여름이 되면 입구에서부터 아름다운 장미 꽃으로 온통 뒤덮인다. 이곳에서는 구시가지와 미헬스베르크 언덕에 우뚝 서 있는 성 미하엘 교회가 한눈에 보인다.
- 밤베르크의 제일 큰 특징은 2차 세계대전 중에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아 옛시가지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밤베르크는 이곳에서만 생산되는 검은색의 '라우흐비'라는 훈제맥주와 오케스트라가 유명하다. 밤베르크는 뮌헨과 같은 바이에른주의 위치하는 작은 도시로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중간지점에 위치하는데 프랑크푸르트에 좀 더 가깝다. 밤베르크는 시내 한가운데 레그니츠강이 흐르는 물의 도시로 '독일의 베네치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출처] [유럽]독일 밤베르크|작성자 한결

○ 구 시가지 활용 : 밤베르크 구 시청사

- 레크니츠강(Regnitz River)이 합류하는 지점에 놓인 두 개의 다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중세에 교회와 세속권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벌였던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그 당시 밤베르크는 레크니츠강을 경계로 주교의 영역과 시민들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어느 쪽도 시청사의 위치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영향권에도 속하지 않은 강 중앙에 세우게 된 것이다. 고딕 양식과 로코코 양식이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수많은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건물로 꼽힌다. 현재 박물관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정기적으로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10/18 (토) Day 8	밤베르크	06:30~07:30	조식
		07:30~10:15	밤베르크 - 다름슈타트 이동 (225km)
	다름슈타트	10:15~10:50	◆자유로운 생태 건축 : 발트슈피렐레
		10:50~11:35	다름슈타트 - 프랑크푸르트 이동 (36km)
	프랑크푸르트	11:35~13:05	중식
		13:05~16:30	◆세계 최초의 도시숲 : 시유림 (그린시티 프로젝트 현장 방문) ◆한명의 인물이 한 마을을 살린다 : 문화예술의 거장, 괴테 생가 방문 ◆뢰머 광장 방문 및 자유시간
		16:30~17:00	공항 이동 (12km)

		17:00~19:50	수숙 후 탑승
		19:50~	프랑크푸르트 - 인천 이동

7-1. 다름슈타트

○ 개요

○ 자유로운 생태 건축 : 발트슈피랄레

- 오스트리아 빈(Wien) 출신의 건축가인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가 건축한 주거용 건물이다. '발트슈피랄레'(Waldspirale)는 독일어로 '숲의 소용돌이'라는 뜻으로 독특한 이 건물의 외형을 그대로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직선으로 획일화 된 건축 양식을 싫어했던 훈데르트바서의 자유로운 작품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건축물이다. 한 동으로 되어 있는 U자 형의 이 건물 안에는 모두 105세대가 있다. 또한 건물 내부에는 지하 주차장과 카페, 바, 작은 상점 등이 있다. 건물의 외벽은 알록달록한 색으로 칠해져 있고, 모두 1천여 개가 넘는 창문이 있는데 서로 같은 모양의 창문이 하나도 없다. 건물의 높이가 점차 높아지는 형태이며 가장 높은 부분은 12층으로 되어 있다. 건물의 옥상에는 나무와 잔디가 있는 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몇몇 세대의 내부는 훈데르트바서 특유의 디자인과 색으로 꾸며져 있으며 모든 벽과 모서리 등이 둥글게 마무리 되어 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꾸며진 세대는 몇 세대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건물에는 양파 모양의 탑 들이 있어서 신비함을 더한다.

7-2. 프랑크푸르트

○ 개요

○ 세계 최초의 도시숲 : 시유림 (그린시티 프로젝트 현장 방문)

- 프랑크푸르트는 도시 면적의 약 52%가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친환경적인 도시로서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시내에는 가로수 및 공원수 등을 포함해 약 16만여 그루의 수목이 있으며, 도공원 40여 곳에는 50여 개의 호수, 못 등이 조성되어 있다. 게다가, 도시면적의 1/3에 달하는 24.3%가 프랑크푸르트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숲 자원의 대부분을 잃은 독일은 3세대에 걸친 인공 조림을 통해 전 국토의 1/3을 산림으로 가꾼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시유림은 가장 모범적인 산림 관련 사례로 꼽힌다. 시유림은 마인강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로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야생동물과 숲의 생태적 역할을 담당

한다.

○ **한명의 인물이 한 마을을 살린다 : 문화예술의 거장, 괴테 생가 방문**

- 총 4층으로 된 건물 내부의 20여개의 방은 당시 상류층이었던 괴테와 그 가족의 삶의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보존되어 있다. 3층에는 괴테가 태어난 방과 세계에서 가장 값 비싼 천문시계가 있으며, 4층에는 괴테가 ‘파우스트’ 1편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 수많은 작품들을 집필한 방이 위치하고 있다.

○ **뢰머 광장 방문 및 자유시간**

- 기원전 50년 무렵 로마군이 주둔했던 까닭에 뢰머베르크(Romerberg)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405년 프랑크푸르트 참의회가 귀족 저택 3채를 사들여 시청사로 개조하고 뢰머 저택의 이름을 따서 뢰머(Romer)라고 명명하였다.